

일본의 메이지 사상계와 ‘科學’이라는 용어의 성립과정

김 성 근

日本 東京大學 科學史科學哲學研究室

Translation of ‘Science’ into ‘*kagaku*’ 科學 during the Meiji Period

Kim Sung Khun

Department of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okyo University, Japan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how the word 'science' was translated into *kagaku* 科學 during the early Meiji period. The *kagaku* was a new word to symbolize how Japanese intellectuals understood 'science' – a unique creation in the West – during the Meiji period. Different translations of 'science' in articles and dictionaries by different authors, especially the effort by Nishi Amane 西周, are analyzed to illustrate what Japanese intellectuals during the period pursued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Neo-Confucian scholars. The new understanding of *gaku* 學 and *li* 理 in a new intellectual environment is discussed further in detail. During the process 'science' became separated from general learning (學) and philosophy (哲學) to be a specific learning that primarily investigates nature.

Key words: science, *kagaku*, philosophy, Nishi Amane, translation

1. 머리말

19세기 동아시아의 서양과학 이식은 서구의 많은 학술용어를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科學이라는 용어 자체가

science의 역어로서 탄생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科學이라는 용어는 science라는 서구 근대문명이 만들어 낸 독특한 학문의 형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메이지(1868-1911) 지식인들에 의해 번역되어 확산된 상징적 기호체계였다. 모리오카 겐지(森岡健二)는 메이지시기를 전후로 간행된 대표적인 번역사전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일본어의 변동을 밝혔다.¹⁾ 그는 메이지 유신 이후 불과 20년에서 40년 사이에 에도어(江戸語)의 절반 정도가 메이지의 신조어(신역어)로 전환되는 일본어 역사상 유래가 없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메이지 문명개화의 과정이란 다른 아닌 전래 언어와의 단절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自然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도 잘 확인된다. 근대 이전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된 自然이라는 용어는 인식론적 측면에서 서구의 자연관과 같이 神의 선물이거나 실험 대상인 nature를 의미하지 않았다. 自然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주로 ‘天地’, ‘萬物’ 등으로 표현되었고 인간과의 感應을 통해 氣的 소통을 행하는 상생의 시공간이었다.²⁾ 또 그러한 시공간 속에서 모순과 갈등이 사라지는 어떤 평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언어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科學이라는 용어를 포함해서 메이지 일본의 지식인들에 의해 창출된 수많은 학술용어들은 식민지기를 거쳐 조선에 유입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학술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³⁾ 이러한 학술어들이 조선인들에게 근대의 새로운 학문을 이해시키는 데 필수적인 개념 틀을 제공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들이 그 이후 일본인들이 만든 지식의 틀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언어로의 전환은 세계관의 전환이라는 철저한 이념적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기존 언어나 전통과의 단절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科學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전환기의 시대상황 속에서 탄생된 대표적인 언어였다.

2. 니시 아마네(西周)와 science의 역어

scientist라는 단어가 일반에 널리 퍼진 계기는 1840년 전후,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 윌리엄 휴얼(William Whewell, 1794-1866)에 의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이 단어의 등장에는 19세기 서구사회의 지적 영역의 다변화와 함께 自然(nature)에 대한 정밀한 탐구를 행하던 일군의 전문가집단이 존재했다. 이 science라는 말이 서구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지기 이전에는 philosophy라는 단어가 보통 그것을 대신하고 있었다. 원래 science의 어원은 라틴어의 scientia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지식’ 또는 ‘앎’을

-
- 1) 森岡健二, “和英辭書における譯語の變遷”, □近代語の成立-明治期語彙編□ (東京: 明治書院, 1969), 2-37쪽.
 - 2) 이러한 외부 환경과의 감응의 느낌이 동양 예술에 가장 극적인 형태로 표현된 것이 기운생동이라는 산수화의 한 표현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南齊(479-502)의 謝赫에 의해서 제기된 화의 6법은 기운생동(氣韻生動), 골법용필(骨法用筆), 응물상형(應物象形), 수류부채(隨類賦彩), 경영위치(經營位置), 전이모사(傳移模寫)로서, 이것들은 구체적인 산수화 화법의 응용으로부터 정신적인 동양미학의 궁극적 가치까지를 표현하고 있다.
 - 3) 강영안,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 (궁리, 2002)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작업의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제4장, “우리의 철학 용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참조.

의미했다. 즉 科學이라는 단어의 탄생과 정착의 과정은 근대 서구문명이 만들어낸 독특한 학문 프레임워크인 science를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이해해 가는 과정이었다.

科學이라는 역어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 단어가 원래 12세기 南宋의 陳亮이 “科學之學”의 약어로서 사용하던 단어를 메이지 일본의 지식인들이 science의 역어로 채택함으로써 주변의 한자문화권에 전파되었으며, 메이지 초기에는 단순한 ‘分科의 學’을 의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科學의 ‘科’가 일찍이 중국과 조선에서 관리등용을 위해 행해졌던 과거라는 시험제도에 보이는 科의 용법처럼 분과별로 학문을 나누는 데 사용되었다면, ‘學’이라는 문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科學의 ‘科’라는 문자가 어떤 학문의 양적인 세분화를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때 ‘學’이 가져온 질적인 의미 변환의 문제 또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⁵⁾

메이지 초기, 서구어를 번역하여 많은 학술역어를 만들어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보다 이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은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였다. 그는 학술어, 특히 철학용어를 중심으로 많은 번역어를 발명했는데, 그 중 다수는 현재에도 동아시아 문화권의 학술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니시는 1862년 동료 쓰다 마미치(津田眞道, 1829-1903)와 함께 막부(幕府)의 공식 해외유학생으로 네덜란드에 유학(1863-65)하여 서구의 새로운 학문에 접했으며, 귀국 후에는 그것들을 일본에 소개하여 메이지 학계의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⁶⁾

서로 다른 언어와 개념으로 표현되는 한 문명을 다른 문명으로 이식해오는 경우 언어의 번역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니시는 science라는 단어를 메이지 3년(1870) 11월경 育英舎에서 있었던 자신의 강의록 “百學連環”에서 學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⁷⁾ 즉 그는 science라는 단어를 곧바로 科學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메이지 7

년(1874) □明六雜誌□에 연재한 유명한 논설인 “知說”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知說”은 주로 지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인간의 心을 智, 意, 情의 셋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도 智를 人心 최고의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했다. 니시는 이 智의 기능을 전쟁에 비유하면서, 그것이 멈추지 않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을 이른바 理라고 하고 있다.⁸⁾ 그리고 智가 이러한 理를 획득하기 위해 행하는 전쟁을 學, 또는 講究, 練磨

4) 일본에서 科學이라는 용어가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山田慶兒, “見ることと見えたもの”, 河合隼雄・佐藤文隆, □日本人の科學□ (東京: 岩波書店, 1996), 58쪽; 村上陽一郎, □日本近代科學の歩み□ (東京: 三省堂, 1977), 20-22쪽; 佐々木力, □科學論入門□ (東京: 岩波書店, 1996), 2-6쪽; 周程, “福澤諭吉の科學概念”, □科學史研究□ 第38卷, No. 211 (1999).

5) ‘과학적 사실’, ‘과학적 검토’ 등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과학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분과의 학’을 의미하지 않는다. 科學이라는 단어는 이미 어떠한 가치를 표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6) 그가 네덜란드에서 배운 철학은 당시 서구의 주류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던 콩트의 실증주의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라고 알려져 있다. 일본의 근대학문 성립에 있어서 니시(西)의 역할은 독보적이다. 그에 관한 연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小泉仰, □西周と歐米思想との出会い□ (東京: 三嶺書房, 1989); 蓮沼啓介, □西周に於ける哲學の成立□ (東京: 有斐閣, 1987)

7) “百學連環”, □西周全集□ 第1卷 (東京: 日本評論社, 1945), 42쪽.

8) “知說一”, □西周全集□ 第1卷 (東京: 宗高書店, 1960), 451쪽.

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智의 보루를 학교, 智가 할거하는 구역을 지식이라고 지칭했다. 나아가 이러한 智가 발한 것을 度量과 形質의 양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度量에 있어서는 才, 能, 識을, 形質에 있어서는 선악, 적극, 소극 및 小知, 大知, 매우 조직된 知(結構組織ノ知)를 구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智가 발한 知의 形質인 小知, 大知, 매우 조직된 知라는 구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니시는 매우 조직된 知에서 발한 것이 학술이 된다고 보았다. 니시는 知를 직포에 비유하여, 小知는 한 개의 知로서 실과 같고, 大知는 짜여진 직포와 같고, 매우 조직된 知는 면포와 같다고 설명했다.⁹⁾ 상술한 것처럼, 學이라는 것이 智가 理를 획득하기 위해 행하는 전쟁과 같다면 學의 요체는 眞理를 아는 것인데, 이러한 學을 강구하는 방법에도 세 종류가 있다고 주장했다.¹⁰⁾ 그것은 視察, 經驗, 試驗이었다. 이 셋이 學을 강구해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면, 學術에서 가장 要領으로 삼아야 할 것은 강구 시의 연역의 법과 귀납의 법이었다. 연역의 법은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萬殊를 확장해 가는 방법이며, 귀납의 법은 다수의 사실을 쌓아서 일관의 진리를 얻어내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마침내 學과 術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서 사실을 일관의 진리에 귀납하고, 또 이러한 진리를 序와 先後 본말을 밝혀서 규범으로 삼는 것을 學(science)이라고 한다. 이미 學에 의해서 진리가 명확할 때는 그것을 활용하여 인간 만반의 사물에 편리하도록 사용하는 것을 術이라고 한다. 때문에 學의 취지는 한결같이 진리를 강구하는 것에 있으며, 그 진리가 인간에게 이해득실이 있는지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術은 진리가 있는 곳에 따라서 활용하여, 인간을 위해 피해를 막고 이익을 얻으며, 손실을 막고 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¹¹⁾

이 인용문은 science와 art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니시는 연역의 법과 귀납의 법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진리를 강구하는 것을 science, 즉 學이라고 간주하고, 그 學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을 art, 이른바 術로 이해했던 것이다. 나아가 니시는 學과 術과의 관계를 科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學은 사람의 性에 있어서 그 智를 열고, 術은 사람의 性에 있어서 그 能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學과 術은 그 취지가 다르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所謂科學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확실히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¹²⁾

學과 術이 원래 그 취지는 다르지만 “所謂科學”에 있어서는 그것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니시는 “所謂科學” 중에서 화학을 예로 들어 이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9) “知說二”, 같은 책, 456쪽.

10) “知說三”, 같은 책, 459쪽.

11) 如此クシテ事實一貫ノ眞理ニ歸納シ、又此眞理ヲ序ヲ前後本末ヲ掲ケ、著ハシテ一ノ規範トナシタル者ヲ學(サイ-ンス)ト云フ。既ニ學ニ因テ眞理瞭然タル時ハ、之ヲ活用シテ人間萬般ノ事物ニ便ナラシムルヲ術ト云フ。故ニ學ノ旨趣ハ唯專ヲ眞理ヲ講究スルニ在テ、其眞理ノ人間ニ於ケル利害得失ノ如何タルヲ論ス可ラサルナリ。術ハ則チ其眞理ノ在ル所ニ隨ヒ、活用シテ吾人ノ爲ニ害ヲ去テ利ニ就キ、失ニ背シテ得ニ向ハシムル者ナリ: “知說三”, 같은 책, 460-61쪽.

12) “知說四”, 같은 책, 461쪽.

化學(chemistry)에서 일반적으로 분석적(analytical) 화학은 學이라고 말해야 하며, 종합적(synthetical) 化學은 術이라고 해야 하지만, 이 둘은 확연히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¹³⁾

즉, 분석적 화학은 學에, 종합적 화학은 術에 속하고 그것들은 “所謂科學”의 한 분야인 화학에서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¹⁴⁾ 이처럼 니시는 “知說”에서 science를 學이라는 문자에 후리가나로 붙이고 있으며, 科學이라는 단어는 화학에서 볼 수 있듯이 분과의 學을 총칭하는 틀로서 사용했다.

니시는 메이지 10년(1877), 동경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제까지 일본의 漢學은 사실상 중국 한학의 모방에 지나지 않았으며, 오늘날 서구로부터 도입된 학술은 그러한 모방의 폐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길을 제시했다.¹⁵⁾ 첫째 “실험을 주로 하는 것” 이고, 둘째 “학문의 淵源을 깊게 하는 것” 이었다.

“실험을 주로 하는 것”이란 자기의 經歷,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학문의 연원을 깊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문에 종사하는 이상은 될 수 있는 한 직접 동시대의 일과 관계가 없더라도, 各其科學의 심원한 理를 추구하여, 무용의 것으로 보일지라도 理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견해를 필요로 하며 ...¹⁶⁾

즉 학문에 도전한다면 “各其科學” 이른바 각각의 학과의 특별한 衆理를 모아서 그것을 일관의 元理까지 관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 속에서 니시가 사용하고 있는 科學이라는 용어 또한 각각의 학문에 있어서 분류의 틀을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중국 한학의 모방에서 벗어나 서구에서 유입된 학문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당시 서구학문의 특징을 표현하는 단어였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science가 아직 확정적인 하나의 역어를 갖기 이전에 일본에는 분화된 서구학문이 개별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우타가와 요우안(宇田川榕庵, 1798-1846)은 오늘날의 botany라는 서구의 신학문을 표현하는 데 “植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chemistry는 “舍密”이라는 역어를 사용해서 일본에 소개했다. 니시는 에도시대부터 난학 등을 통해서 전해지던 그러한 각각의 학문을 “各其科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科學이라는 단어가 science의 역어로 번역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니시 이외의 메이지 초기 다른 학자들에게서도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이지 시대 대표적 계몽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경우에는 “文學科學”이라는 용어를 통해 분화한 一科의 학문을 표현하려고 했으며, science에 대해서는 “實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¹⁷⁾ 아직 학문

13) 化學(ケミストリー)ノ如シ大要分解法(アナリチカル)ノ化學ハ之ヲ學ト謂フヘク、總合法(シンテチカル)ノ化學ハ之ヲ術ト謂フヘシト雖モ、亦判然相分ツ可ヲサル者ガ如シ: “知說四”, 같은 책, 461쪽.

14) 여기서 學과 術은 오늘날의 science와 technology에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15) 이 연설은 당시 동경대학의 法學, 理學, 文學의 3학부 강의실에서 행한 것으로 “學問ハ淵源ヲ深クスルニ在ルノ論”이라는 제목의 연설인데, □ 西周全集 □ 第1卷(宗高書店, 1960), 568-573쪽에 실려 있다.

16) “學問ハ淵源ヲ深クスルニ在ルノ論”, □ 西周全集 □ 第1卷(高宗書房), 568쪽.

17) 福澤諭吉, □ 學問のすすめ □ (1872)에는 ‘文學科學’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文學會員に告グ”(1883)에 ‘實學’이라는 용어에 ‘サイエンス’(science)라는 후리가나를 붙이고 있다.

분류의 틀이 정립되지 못했던 메이지 초기에는 역어 또한 매우 유동적인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니시를 비롯한 메이지 지식인들에게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였다.

3. 學의 전환과 理의 분화

메이지 초기를 지나며 科學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학문 분류의 틀을 의미하는 데 멈추지 않았다. 니시가 사용한 science의 역어로서 學 뿐만 아니라 서구의 학문 프레임워크를 표현했던 科學속의 學 또한 사실상 동양 전래의 學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변하고 있었다. 즉 용어의 개념상에 있어서 學 전반의 의미 전환을 동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언뜻 보아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 學이라는 것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인가? 學은 니시에 의해 人心 최고의 智가 理를 획득하기 위해서 행하는 전쟁에 비유된 것에서 드러나듯 종래 宋儒들의 理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¹⁸⁾ 니시는 앞 사람들의 잘못을 다음처럼 지적했다.

宋儒 등은 무엇이든지 天理라고 풀어, 天地風雨로부터 인륜상의 일까지도 모두 일정불변의 天理가 있어서 이것에서 벗어나면 모두 天理에 거스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유치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¹⁹⁾

니시는 송유 또는 주자학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理를 혼동한 결과 미신적인 망상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한 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理를 다음처럼 두 가지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리는 아프리오리(a priori)라고 해서 선천의 理이며, 심리는 아포스테리오리(a posteriori)라고 해서 후천의 理인데, 우선 선천의 理에 의거하여 인간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인간에게 후천의 心理가 자연스럽게 구비되기 때문에, 이것을 ‘네세시티’(necessity)라고 하여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理라고 말한다. 이 理는 선천의 물리처럼 일정하여 움직일 수 없는 것과는 달리, 한 가지 일에 있어서도 천차만별로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 속에서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⁰⁾

이렇게 니시는 理를 물리와 심리를 구분하여 새롭게 파악했다. 이에 따라서 學은 물리를 파악하기 위한 學과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學으로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했다. 니시의 學이 두개의 理를 혼동했다고 주장되는 종래인들, 특히 宋儒의 學과 다를 것은 당연하다. 즉 理의 구별을 몰랐던 송유의 學은 더 이상 science의 역어로서의 學 속에 포함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구체도의 학문으로서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었다.²¹⁾ 한편 science의

18) “知說一”, □ 西周全集 □ 第1卷 (高宗書房), 452 – 453쪽.

19) “尙白筭記”, 같은 책, 170쪽.

20) 物理ハア、プリオリト云ツテ先天ノ理トシ、心理ハア、ポステリオリト云ツテ後天ノ理ナレバ、先ツ先天ノ理ニテ人間ト云フモノガ出來テ、其人間ニ就テ後天ノ心理ガ自然ニ備ハルゆえに、之ヲ子セシテイト云ツテ、已ムヲ得ザルニ出ツルノ理ト申スデゴザル。併シ此理ハ先天ノ物理ノ一定動力ス可ラザルモノトハ違ヒ、一事ニ就テモ千差萬別ト色々ガゴザル。其處デ其中ノ一番ニ至當ト云フ處ヲ擇ンデトラ子バナラスデゴザル: “百一新論”, □ 西周全集 □ □ 10 (日本評論社), 608 – 609쪽.

21) 물론 이러한 니시의 理 구분은 후에 이론적 난관에 봉착한다. 그는 물리와 심리의 경계를 인식의 주체와

역어로서 새로운 지위를 획득한 學이라는 용어는 人心 최고의 智가 각각의 理를 획득하기 위해 행하는 전쟁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나아가 니시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된 學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찰, 경험, 시험과 같은 새로운 방법적 원리로 무장된 것이었다. 니시는 “百學連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數와 理의 두 가지를 통해서이다. 예를 들어 1개월 1인분의 쌀의 양을 측정하여 쌀 일두 오승이라는 것을 알면, 다른 달에 소비될 쌀의 양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곧 數이다. 또 칼을 가지고 물건을 자르려고 할 때, 아직 자르기 전에는 칼을 다른 물건에 대보면 반드시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理이다. 때문에 미래를 아는 것은 數와 理의 두 가지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²²⁾

이처럼 니시는 理의 추구와 함께 數를 새로운 學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사물에 대한 시찰, 경험, 시험이라는 방법론적 원리에 의해서 파악된 理를 양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

한편, 후쿠자와 유키치도 1883년(메이지16)의 논설에서 한학과의 단절과 양학으로의 전환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었다.

한학에는 조금도 원칙이라는 것이 없고, 그 근거로 삼는 것은 음양이 아니면 오행에 불과하며, 입론도 문장도 매우 간단하고 막연하여 주된 의미를 이리저리 바꾸거나 그 뜻을 두세 가지로 취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知的인 미숙자들이 자유롭게 이것을 이용하여 건강부회의 사실을 만드는 것에 매우 편리하다. 하지만 양학은 결코 그렇지 않다. 만고불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학과에 있어서도 모두 이 원칙에 의거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하나의 일을 논하는 데도 반드시 이 원칙과 결과가 부합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의 설로 인정하지 않는다.²³⁾

후쿠자와는 특히 원칙과 결과를 대조하는 검증이라는 작업에는 원칙에 근거하여 입론을 세우고, “반드시 이것을 통계표(statistic) 즉 결과와 대조하여 그 부합의 여부를 파악하고 논지의 시비곡직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 하며, 통계표의 사용을 권하고 있다.²⁴⁾ 이것은 양학 이른바 서양 근대 학문의 새로운 원칙으로서의 理와 그것을 기술할 數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동양의 유교주의와 서양의 문명주의를 비교해 보면, 동양에 없는 것은 유형의 數理學과 무형의 독립심, 이 두 가지이다” 라는 후쿠자와의 서양문명주의의 이해로 귀결된다.²⁵⁾

이처럼 學은 메이지 사상공간을 통해 확실한 질적 전환을 이루는 데 성공했으며, 니시 이후의 메이지 학문은 개별적인 편차는 존재하더라도 이와 같은 學의 질적 전환이라는 기반 위에서 양적 세분화를 통해 발전하기 시작했다.

대상이 공존하는 인간의 몸으로 파악하여, 生理와 性理의 경계 문제를 생체학의 도입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理의 구분은 결국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구분이 데카르트적 정신과 물질의 이원적 구분과 동일한 맥락에서 행해진 이상, 일본의 학문이 니시를 통해서 근대 철학의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음은 매우 역설적인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22) 西周, “百學連環”, □ 西周全集 □ 1 (日本評論社), 147쪽.

23) 福澤諭吉, “文學會員に告ぐ”, □ 福澤諭吉全集 □ (東京: 岩波書店, 1963), 270쪽.

24) 같은 글, 270 - 271쪽.

25) 福澤諭吉, □ 福翁自傳 □ (東京: 岩波書店, 1995), 206쪽.

4. 과학과 철학의 분화

니시에 의해서 science의 역어로서 채택된 學이라는 용어는 주지하듯이 오늘날 science의 번역어로서 정착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부터 science가 科學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었는가? 메이지기에 간행된 몇 가지 사전 속에서 그 흐름을 추적해보기로 하자. 메이지 전후에 간행된 사전 속에서 science의 번역어로 사용된 용어는 다른 역어들처럼 사실상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었다.

메이지 이전에 편찬된 호리 다쓰노스케(堀達之助)의 □英和對譯袖珍辭書□(1862)에 의하면 “science: 學問, 伎藝”라고 번역되었다. 마찬가지로 메이지 직전에 편찬되어 당시 일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James Curtis Hepburn(1815-1911)의

□和英語林集成□(1867)에서는 “science: gaku, jutsz (學, 術 - 이하 괄호 안은 인용자)”가 채택되었다. 이 사전은 초판의 내용을 크게 개정, 증보하여 메이지 5년(1872)에는 재판을, 메이지 19년(1886)에는 제3판을 출판했는데, 여기에서는 “science n. gaku, jutsu, gakumon (學, 術, 學問)”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또 메이지 9년(1876), Ernest Mason Satow, Ishibashi Masakata에 의해서 편찬된 *An English - Japanese Dictionary of the Spoken Language*에서는 “science n. gakumon (學問)”이라고 번역되었다. 한편 메이지기의 대표적인 철학자중 한 사람인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 1855-1944) 등이 편찬한 □哲學字彙□(1881)에 의하면 “science 理學, 科學”이라고 번역되었다. 사전 속에서 science가 科學이라는 역어로서

실리게 된 것은 이 □哲學字彙□가 비교적 초기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간행된 사전류에서 science의 역어로서 科學이라는 용어가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

A. Nuttall이 집필하고 타나하시 이찌로우(棚橋一郎)가 번역한 □英和雙解字典

□(1885)에서는 “science 知識, 藝, 理學, 學問, 科學, 智慧, 博學, 學”이라고

번역되었다. 또한 □附音插圖 和譯英字彙□(島田豊纂 譯, 1888)에 의하면, “science 知識, 熟練, 博學, 考究, 窮理, 理, 道, 學, 理學, 科學”이라고 되어 있다.

물론 □哲學字彙□를 기점으로 하여 science의 역어로서 科學이 비교적 많은 사전에서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哲學字彙□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메이지 전후에 편찬된 사전류에서는 몇 가지 계통별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최초의 기준이 되었던 사전을 참고로 하여 편찬된 사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서구어의 일본어 번역어는 시간적 순서에 상관없이 계통별의 사전에 따라 동일한 역어가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하나의 역어가 일단 어떤 사전 속에 나타나더라도, 그 용어가 다른 사전에서 반드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시가 역어난립의 시대여서 하나의 원어에 대해 몇 개의 주요한 역어가 경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는 앞에서 보았던 science와 그것과 비슷하게 치열한 경합 상태였던 philosophy

의 역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메이지 전후의 사전에 나타난 science와 philosophy의 역어

연도	사전의 종류	Science의 역어	Philosophy의 역어
1862 (네덜란드)*	堀達之助等編纂, □ 英和對譯袖珍辭書 □	學問, 伎藝	理學
1867 (미국)	J. C. Hepburn 編譯, □ 和英語林集成 □	gaku, jutsz (學, 術 – 이하 괄호속은 인용자)	gaku, jutsz, ri, do()ri, michi, do() (學, 術, 理, 道理, 途, 道)
1872 (미국)	□ 和英語林集成 □ [증보재판]	gaku, jutsu, gakumon (學, 術, 學問)	gaku, jutsz, ri, do()ri, michi, do() (學, 術, 理, 道理, 途, 道)
1875 (영국)	Ernest Mason Satow and Ishibashi Masakata, <i>An English – Japanese Dictionary of the Spoken Language</i>	gakumon (學問)	
1881 (일본)	井上哲次郎等編集, □ 哲學字彙 □	理學, 科學	哲學
1885 (영국)	P. Austin Nuttall 著 棚橋一郎譯, □ 英和雙解字典 □	知識, 藝, 理學, 學問, 科學, 智慧, 博學, 學	理論, 哲學, 理學, 理科
1886 (미국)	□ 和英語林集成 □ [증보3판]	gaku, jutsu, gakumon (學, 術, 學問)	gaku, jutsz, ri, do()ri, michi, do(), tetsugaku (學, 術, 理, 道理, 途, 道, 哲學)
1888 (미국)	曲直瀬愛校訂, 杉浦重剛/井上十吉校閱, 島田豊纂譯, □ 附音插图 和譯英字彙 □	知識, 熟練, 博學, 考究, 窮理, 理, 道, 學, 理學, 科學	理學, 哲學, 理論, 究理
1888 (미국)	博言學士イーストレーキ/棚橋一郎共譯, 農學士志賀重昂序, □ ウェブスタ-氏新刊大辭書 和譯字彙 □	學藝, 學問, 智慧, 知識, 博學, 理學, 科學	理學, 哲學, 理論, 理科, 究理
1884 – 89 (미국)	尺振八編, □ 明治 英和字典 □	知識, 科學, 熟學, 熟練, 考究, 窮理, 理, 道, 學, 理學	理學, 哲學, 理論, 究理
1912 (일본)	□ 英獨佛和哲學字彙 □ (井上哲次郎, 元良勇次郎, 中島力造)	學, 理學, 科學	哲理, 哲學

* 각각의 사전이 편찬되는 데 사용된 원사전의 계통별 분류를 가리킨다.

위와 같은 사전 이외에도 메이지기에 science의 역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동양의 루소라고 불렸던 나카에 쇼민(中江兆民, 1847 – 1901)은 서구철학의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 □ 理學鉤玄 □ (1886)에서 “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는 것과 있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옛날부터 각종의 學術이 일어난 이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붙어 science를 學術이라는 용어로 번역하고 있다.²⁶⁾ science를 學術이라는 용어로 번역한 것은 마에카와 카메지로(前川龜次郎)의 “學術의 本體” (1886)라는 논설에서도

26) 人性ノ自然ニ知ルコト有ルコトヲ求ムル者、此レ正サコ古來諸種ノ學術(シヤンス)ノ興リシ所以ナル: □ 中江兆民全集 □ 第7卷 (東京: 岩波書店, 1984), 14쪽.

발견할 수 있다. 마에카와는 “學術이라는 것은 영어로 science라고 말하는데, 근래 일본에서 이 단어를 번역하여 學術, 理學, 科學, 學問, 學이라고도 한다” 고 말하면서, 자신은 science의 역어로서 일단은 學術을 채택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眞理로 이루어진 일종의 유기체” 라고 규정했다.²⁷⁾ 여기서도 science라는 새로운 학문이 眞理라는 개념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메이지 초.중기에는 동일한 역어가 많은 原語를 가진 경우나, 역으로 동일한 원어가 많은 역어를 가진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전자의 예로서 理學이라는 용어는 science의 주요한 역어이면서, 동시에 philosophy의 역어로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하나의 사전 속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자주 보이는데, 예를 들어 理學을 □ 英和雙解字典 □이나 □ 附音插圖和譯英字彙 □에서 science의 역어로서 사용하는 동시에 philosophy의 역어로도 사용하고 있다. 메이지 초기에는 아직 science와 philosophy의 학문영역이 확실히 구별되지 않고 단지 막연하게 분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혼란은 science와 philosophy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서양학문 분야의 도입과 정착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각각의 학문영역이 성립해가는 과정은 그 학문영역의 명칭인 역어의 성립과 함께 진행되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理學이라는 용어는 科學과 哲學이 science와 philosophy의 역어로서 정착하기 이전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던 용어였다. 물론 哲學이라는 용어는 이미 메이지 14년(1881) □ 哲學字彙 □라는 사전의 타이틀로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일반 속에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 메이지 17년(1884)에 조직된 ‘哲學會’ 회원이었던 미야케 유우지로(三宅雄二郎, 1860-1945)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래 哲學이란 용어는 원어 philosophy의 번역어로서, 메이지 14년 4월 舊동경대학의 문학부에 一科의 명칭으로 사용되면서 세상 일반에 유행하게 되었다. 실은 理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만, 당시 理學은 이미 science의 역어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특이한 역어를 만들게 되었다.²⁸⁾

즉 哲學이라는 용어가 philosophy의 역어로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10년(1877), 동경대학 문학부의 학과분류에서 사용된 명칭이 계기였다는 것이다. 당시 문학부의 제1과는 史學, 哲學 및 政治학과였다.

5. 哲學이라는 역어의 선택과 그 사상적 배경

27) 抑々學術トイヘルモノハ英語ニテ之ヲサイエンストイフ。近來本邦ニテハ此英語ヲ譯シテ學術トイフモアリ、理學トイフモアリ、科學トイフモアリ、學問トイフモアリ、學トイフモアリ。

リ: “學術ノ本體”, □ 學藝雜誌 □ 第1號(明治19年8月), 7쪽.

28) 抑モ哲學ノ語タル、原トフサロソフサ一ノ翻譯ニシテ、明治十年四月旧東京大學ノ文學部二、一科ノ名トシテ使用シタルヨリ、世上一般ニ流行スルコトト爲リタル者ナリ、實ハ理學ト稱スルカタ의切ナル可ケレモ、當時理學ハ已ニサイエンスノ譯語ト定マリオリシヲ以テ、強テ一種特異ノ譯語ヲ作り出シタルナリ: “哲學ノ範圍ヲ弁ス”、□ 哲學會雜誌 □ 第1號(明治20年2月).

哲學이라는 용어를 니시가 처음 만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²⁹⁾ 가장 이른 흔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쓰다 마미치(津田真道)의 □性理論□(1861)의 발문인데, 거기서 니시는 philosophy를 希哲學이라고 번역했다.³⁰⁾ 니시는 서구학문 중에서 “論氣”(氣를 논하는 학문)의 학과들은 일본에 전해지고 있으나 “論理”(理를 논하는 학문)의 학과인 서구철학이 소개되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자신의 동료 쓰다 마미치(津田真道)가 서구유학에서 돌아온 후에는 후자에 관한 보다 더 깊은 내용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論氣”라는 것은 格物(물리), 畚密(화학), 地理, 器械라고 말해지듯이 오늘날 자연과학의 제반 분야를 가리키고 있으며, “論理”는 哲學을 가리키고 있었다. 얼마 후 니시는 “開題門”(1870)에서 philosophy를 “斐鹵蘇比”라는 발음 그대로의 한자어로 기록하고 있다.³¹⁾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니시가 “開題門”을 쓸 당시 동양의 儒學을 philosophy에 대응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philosophy를 동양의 儒學과 거의 대등한 관계로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은 동일한 시기에 쓰여진 “復某氏書”(1870)에서 孔孟의 道와 서구의 哲學을 대동소이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사실로서도 확인된다.³²⁾ 그런데 니시는 이 “復某氏書”에서는 이미 哲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philosophy에 대해서 哲學이라는 역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밝힌 것은 “生性發蘊”(1872)이라는 논문을 통해서였다.

哲學의 원어는 영어로 philosophy, 불어로 philosophie이다. 희랍어의 philo는 사랑한다는 것이고 sophos는 현명하다는 의미로서, 愛賢者의 뜻으로 그 學을 philosophy라고 한다. 周茂叔[주렴계]의 소위 ‘士希賢’의 뜻이다. 후세의 관용으로 한결같이 理를 강구하는 學을 가리킨다. 理學, 理論이라고 하는 것이 직역이지만 다른 것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哲學이라고 번역하여 동양의 유학과 분리하고자 한다.³³⁾

- 29) 아소우 요시테루(麻生義輝)에 의하면, 幕末의 사서 및 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philosophy라는 용어에 대해 ‘性理學’이라는 중국철학상의 成語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었으며, 宋儒의 理氣說로부터 전용된 理學이나 格物窮理 사상으로부터 나온 ‘究理學’ 등의 용어가 자연과학의 뜻과 혼재하면서 哲學 대신에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麻生義輝, □近世日本哲學史□(東京: 近藤書店, 1942), 39-50쪽.
- 30) 西周曰, 西士之學, 傳之既百年餘, 至格物畚密, 地理器械等諸科, 間有窺其至者, 獨至吾希哲學一科, 則未見其人矣, 遂使世人謂, 西人論氣則備, 論理則未矣, 獨有見於此者, 獨自我友天外如來始, 今此論頗著其機軸, 既有壓夫西哲而軼之者, 不知異日西遊之後, 將有何等大見識以發其蘊奧也, 西魚人妄評: □西周全集□ □1□(高宗書房), 13-14쪽. 니시는 우선 “格物畚密地理器械等諸術”이라고 쓰고, 나중에 그 術의 一字를 科와 바꿔서 다시 쓰고 있다. 한편 ‘希哲學’이라는 역어는 “니시가 주조한 매우 특수한 용어”였다고 알려진다. (麻生義輝, 앞의 책, 46쪽) 그러나 한편으로는 ‘希哲學’을 니시와 쓰다(津田)의 공동 조어라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蓮沼啓介, □西周に於ける哲學の成立□, 127쪽, 注3 참조. 또 카야노 요시오(茅野良男)는 쓰다(津田)의 “天外獨語”(1860-62)에 대한 오오쿠보 토시아키(大久保利謙)의 분석을 통해, philosophy의 번역 과정에는 ‘求知學’, ‘求聖學’, ‘希哲學’, ‘哲學’이라는 계열이 있고, 최초의 둘은 쓰다(津田)의 작업으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近代日本の哲學とドイツ觀念論”, □ドイツ觀念論と日本近代□(東京: ミネルヴァ書房, 1994), 15-16쪽.
- 31) 東土謂之儒, 西州謂之斐鹵蘇比(ヒロソヒー), 皆明天道而立人極, 其實一也: “開題門”, □西周全集□ □1□(高宗書房), 19쪽.
- 32) 大率孔孟の道, 西洲の哲學に比して大同小異、東西相因襲せずして符節をあはせたるか如し: “復某氏書”, 같은 책, 305쪽.
- 33) 哲學原語、英フィロソフィ、佛フィロソフィー、希臘ノフィロ愛スル者、ソフオス賢ト云義

물론 니시가 이러한 역어를 채택한 것이 단순히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는 서양의 哲學과 동양의 유학이 학문의 형태로서는 유사하지만, 서양의 哲學은 새로운 발명에 따라 이전 학자의 설을 극복하여 확고한 사실만을 채택하기 때문에 날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데 반해서, 동양의 유학은 공맹의 학파를 계속 상속만 할뿐 더 낳은 것으로의 변혁이 없다고 지적했다.³⁴⁾ 새로운 학문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필요로 했을 뿐 아니라, 전술한 것처럼 學이 理의 구분을 전제하고 있는 한 理學, 理論 보다는 哲學이라는 용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즉 니시는 동양의 유학에도 理의 개념적 구별을 통해 질적, 양적으로도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니시의 분류에 의하면, 기존 儒學은 心理上學 속의 哲學이라는 일부 학문으로 한정됨과 동시에 질적으로는 공맹의 학파를 상속하면서 변화를 거스르는 구시대적인 학문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니시의 학문구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존 儒學의 理를 재해석하는 한편 새로운 학문의 통일적 틀을 확보해 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이 科學은 물론 哲學이라는 역어의 선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哲學이라는 역어는 그 후에 간행된 니시의 “百一新論”(1874)에 의해서 일본 근대의 학문공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이다.³⁵⁾

한편 哲學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피하려고 한 사람들은 다른 역어로서 주로 理學을 사용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에는 초민(兆民)과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1828 - 1902) 등 이었다. 초민은 □理學鉤玄□(1886)에서 “philosophy는 희랍어로서 일반적으로 哲學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것은 그리 불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역경궁리의 語에 따라 번역하여 理學이라고 하려는데, 그 뜻은 서로 같다”고 말했다.³⁶⁾ 그는 理學의 과제는 “반드시 제종 학술이 서로 통하여 근본으로 하는 곳의 理를 구하여, 사물의 최고층의 장소에 투영시킴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一科의 理를 구하는 산수의 學, 物性學, 物化學, 星學, 醫學, 法學 등과 구별하고 있다.³⁷⁾ 초민의 학문은 당시 유행하던 단순한 박학이 아니라 人性과의 관련 속에서 理學으로 환원하려고 한 경향이 강했다. 이 때문에 통상 學術(science)과 理學(philosophy)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한편, 니시무라는 science에는 實學을, philosophy에는 理學을 채택하는

ヨリ傳來シ、愛賢者ノ義ニテ其學ヲフィロソフイト云フ、周茂叔ノ所謂ル士希賢ノ意ナリ、後世ノ習用ニテ專ラ理ヲ講スル學ヲ指ス、理學理論ナト譯スルヲ直譯トスレモ、他ニ紛ルコト多キ爲メニ今哲學ト譯シ東州ノ儒學ニ分ツ: “生性發蘊”, 같은 책, 31쪽.

34) “百學連環”, □西周全集□□1□(日本評論社), 169쪽.

35) “百一新論”, 같은 책, 616쪽. 아소우 요시테루의 주장처럼, “百一新論”의 작성 연대가 메이지 이전이라면 哲學이라는 용어의 출현은 에도 말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소우 요시테루, 앞의 책, 110쪽을 참조할 것.

36) □中江兆民全集□第7卷(岩波書店, 1984), 13쪽. □易經□의 “說卦傳”에는 “窮理盡性以至於命”이라는 구절이 있다. 초민이 哲學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거부하고 그것을 理學으로 번역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사이토 쓰요시(齋藤毅)는 메이지기에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연관을 중시하여 그 융합을 의도한 사람들에게 哲學이라는 신조어는 불만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明治のこ とば□(東京: 講談社, 1977), 353쪽. 이처럼, 메이지기 번역어의 선택에는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이라는 두 학문 패러다임의 거대한 충돌과 경합이 있었다.

37) □中江兆民全集□第7卷, 15쪽.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서양사상과 동양사상의 융합을 고집했던 학문 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 서양학문의 색채가 강했던 哲學이라는 신조어에는 불만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움직임과는 달리 哲學과 科學이라는 역어는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어 갔다. 哲學 대신에 理學을 사용하던 초민도 후기의 저작 □續一年有半□(1901)에서는 “理學 즉 세상의 소위 哲學的 사조”라고 표현하여, 哲學을 理學과 함께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니시무라 또한 □自識錄□(1900)에서 philosophy라는 용어는 “원래 理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만, 오늘날 哲學이라는 명칭이 세상에 널리 통용되고 있기에 잠시 이것에 따른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³⁸⁾ 초민과 니시무라의 이와 같은 언급은 메이지 초기 science와 philosophy의 역어를 둘러싼 경쟁이 후기에 이르러서는 점점 科學과 哲學으로 귀결되어 감을 보여준다.

6. 맺음말

메이지초기 science라는 신학문은 眞理를 탐구하는 새로운 학문분야로 자리매김 했다. 메이지 신학문의 개척자였던 니시는 理를 物理와 心理로 분화시켜 새롭게 파악했다. 이러한 메이지 지식인들의 역어 선택은 宋儒의 학문을 가상 적으로 설정하며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科學은 메이지의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는 이러한 근대의 학술어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사상공간을 지배하는 타자의 언어로서 강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8) □自識錄□, □西村茂樹全集□ □1□ (東京: 日本弘道會編纂, 1976), 621쪽.